



제주 올해 첫 폭염특보… 전력수요도 증가

제주시 동부에 폭염주의보… 작년보다는 8일 늦어
구좌 체감온도 33.5℃… “전력 예비율은 안정 유지”

제주지역에 올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시방기상청은 6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 동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폭염주의보는 지난해 (6월 28일·제주 동부)보다 8일 늦게 찾아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장맛비가 주춤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최고기온은 구좌 30.8℃, 김녕 30.6℃, 외도 30.4℃, 대흘 29.8℃, 제주 29.3℃, 오등 29.1℃, 애월 28.2℃, 한림 27.5℃, 성산 27.5

℃, 성산수산 28.5℃ 등이다. 습도가 더해져 최고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올랐다. 구좌 33.5℃, 김녕 32.0℃, 외도 31.8℃, 대흘 31.4℃, 성산수산 31.2℃, 한림 30.6℃, 애월 30.5℃, 제주 30.4℃, 오등 30.4℃, 성산 30.0℃ 등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시 동부를 중심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 안팎, 최고 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고 예보했다. 또 이외 지역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주의보의 다음 단계인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예상되면 내려지고,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늦은 장마와 폭염이 함께 찾아오면서 전력수요도 늘고 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순간 최대전력 부하량은 880MW로 전날 최고치 (830.19MW)를 넘어섰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관계자는 “장마와 날

씨가 더워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력 예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제주는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25.7℃를 기록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비해 제주도는 우선 항만, 공항, 택배, 통신설비 등 폭염 취약성이 높은 직종의 야외노동자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관광과 농수산업 등 야외활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부서별 맞춤형 현장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중산간도로에 세워진 차량서 화재

중산간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나 13분 만에 꺼졌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중산간도로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전소돼 약 1600만원

(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8대와 인력 25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1시 36분쯤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7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

제주시, 공원 일대 중점 점검·야간 불시 단속

제주시가 7월 한달간 지역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반려견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7월 한달간 ‘동물 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희망등록 대상으로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단속은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인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야간에도 불시 단속이 이뤄진다.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패티켓 위반 사항도 점검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목줄 미착용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 등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동물 등록과 패티켓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39건, 시정조치 5건을 실시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은 목줄 미착용 23건, 동물 미등록 2건, 기타 16건 등이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한라산 어승생악 야간탐방 프로그램 운영

내달 28일까지 매달 금요일마다 진행

한라산 어승생악에서 야경과 별자리를 감상하며 여름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간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어승생악 야간특화 프로그램 ‘달빛 아래 별 하나 나 하나’를 오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어승생악 정상에서 제주시 야경과 밤바다를 감상하고 한라산 자연과 별자리에 대한 해설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신청은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회차별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또 1인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야간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 또는 어리목탐방안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탐방객들이 어승생악 정상에서 한라산 여름밤의 매력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라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여름철 가축질병 대응”

도, 9월까지 신고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질병 신고센터는 질병진단반, 방역지원반, 소독지원반으로 구성된다. 가축질병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질병검사를 실시한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을 신속 진단해 치료와 방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자체 방역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와 방역 취약 가축 밀집 사육단지에는 소독을 지원해 질병확산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신종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예방도 넓힌다. 하절기에 활동이 활발한 유해해충을 공중포집기 2개소를 활용해 채집하고 폄프스킨·블루밍·아프리카마역·소 모기매개 바이러스 등 10종의 질병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의심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지난해 9월부터 무상으로 시범 운영중인 관광형 자율운행버스 ‘일출봉Go!’가 8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제주도 제공

관광형 자율버스 ‘일출봉Go!’ 유료 전환

8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수준… 노선 일부 조정

제주지역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관광형 자율주행버스가 다음달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운행중인 관광형 자율주행 노선버스의 ‘일출봉Go!’를 오는 8월 1일부터 유상운송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일출봉Go!는 운전석 없이 안전관리자 1명과 승객(좌석 8석)만 탑승하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핸들과 페달 없이 이동하는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이 적용됐다. 지난해 9월부터 무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으며, 현재까지 승객 2900여명이 이용했다.

제주도는 일출봉Go!를 유상으로

전환하며 노선을 일부 조정했다. 8월부터는 휘닉스아일랜드와 성산항입구 회전교차로를 잇는 구간을 운행하며, 제주도는 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성산일출봉 안으로 주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안도로 구간을 운행 경로에 포함해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으며 교통카드와 온나라페이로 결제할 수 있지만, 현금 결제는 안 된다.

이상민기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츠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역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야생)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맏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